

17. 나마하계관: 해설, 이방인 및 표류자설

나마하계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 설에서 나마하계의 무서운 외모는 붉은 얼굴에 머리가 긴 거칠고 야성적인 외국인 무리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. 이 설에 따르면 한 척의 외국 배가 오가의 해안 앞바다에 가라앉았고 이곳에서 살아남아 표류한 선원들이 인근의 산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. 겨울이 되면 선원들은 마을로 내려와 먹을 것을 구걸하거나 훔쳤습니다. 또한 이 설의 다른 부분에서는 오가에 예로부터 전해지는 신도의 성지인 아카가미 신사에 이르는 산기슭부터 이어진 돌계단이 바로 선원들이 제공한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하여 깬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